



코리 렘케 ■ “3차 유행”의 물결에 적응하기
입양가족상담교육협회 ■ 최순영
호세 마리아 말코티

EDITION #2
2020년 12월

- 3 **해외입양인연대 소식**
숫대 (친생가족찾기 프로그램)
- 4 **국내거주 해외입양인 인터뷰**
코리 렘케 (하운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해결할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 8 **한국생활&문화**
“3차 유행”의 물결에 적응하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바뀌어 놓은 서울 거주 입양인들의 생활
- 12 **국내기관**
KAAFC
사단법인 입양가족상담교육협회
- 14 **국내입양인**
평택에 사는 국내입양인 최순영 인터뷰
“나 엄청 큰 비밀이 있어...나 입양됐어”
- 18 **해외입양인**
호세 마리아 말코티
로마에 사는 이탈리아 입양인
- 19 **표지 아티스트**
캐서린 델라 루시아 (CATHERINE DELLA LUCIA)

iam INTERNATIONAL
ADOPTEE
MAGAZINE

- 편집 에디터
Tom McCarthy
- 콘텐츠 에디터
Kara Rickmers
- 번역
[한국어]
백윤진
김예슬
남요안나
유현지
- [불어]
박아름
박현춘
Kim Claes
- 레이아웃 & 디자인
Didier Yoo
Kara Rickmers
- 사진
G.O.A.'L.
- 연락처
주소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파빌리온 806호
- 이메일
media@goal.or.kr
- 웹사이트
www.iam.goal.or.kr
www.goal.or.kr
- 전화번호
+82-2-325-6585 (한국어)
+82-2-325-6522 (영어)

본 간행물은 아동권리보장원과 해외입양인연대의 기금으로 제작되었으며 전세계 입양인 단체에 무료 배포됩니다.



SPONSORED BY NCRC
© Published in Korea by GOAL

숫대 (친생가족찾기 프로그램)

2020년, 전 세계 인구와 경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고 계속해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이 전염병으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각국의 코로나 대응책과 그러한 대응책의 실시가 미치는 장기적 영향에 대해 우리는 며칠 혹은 몇 달 까지도 분석하고 토론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코로나가 입양인들의 친생가족찾기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해외입양인연대가 어떻게 이를 기회 삼아 향후 계획을 모색하고 있는 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코로나 초기의 일상은 그 전년도와 1월, 2월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다. 4월에는 매우 바빠질 거라 그에 대비하고 있었다. 그쯤에 입양인 8명이 모국 방문을 앞두고 있었고 친생부모 찾기를 위해 우리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었고 유럽과 미국에서는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많은 입양인들이 올해 한국을 찾지 못 할 것이라는 걸 알려주는 신호였다. 결국 매년 개최하던 해외입양인의 **모국방문행사**도 취소해야 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 입양인 커뮤니티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해외입양인연대의 주요 행사이다.

해외입양인연대의 친생가족찾기 팀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특히 큰 타격을 입었는데, 입양인들의 의뢰 요청이 줄어들었고 한국 방문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친생가족찾기 서비스가 잠시 뜸했다. 이 기간 동안 각 부서의 구성원들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현재 우리 서비스에 대한 고찰과 나아갈 방향을 세우는데 주력했다.

친생가족찾기에 대해 알고 있거나 입양인들의 친생가족찾기에 도움을 준 적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 다른 단체와 개인들도 친생가족찾기 여정의 각기 다른 단계에서 입양인들을 돕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친생가족찾기 서비스는 해외입양인연대에서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했다. 해외입양인연대가 차별화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의 강점은? 약점은? 한계점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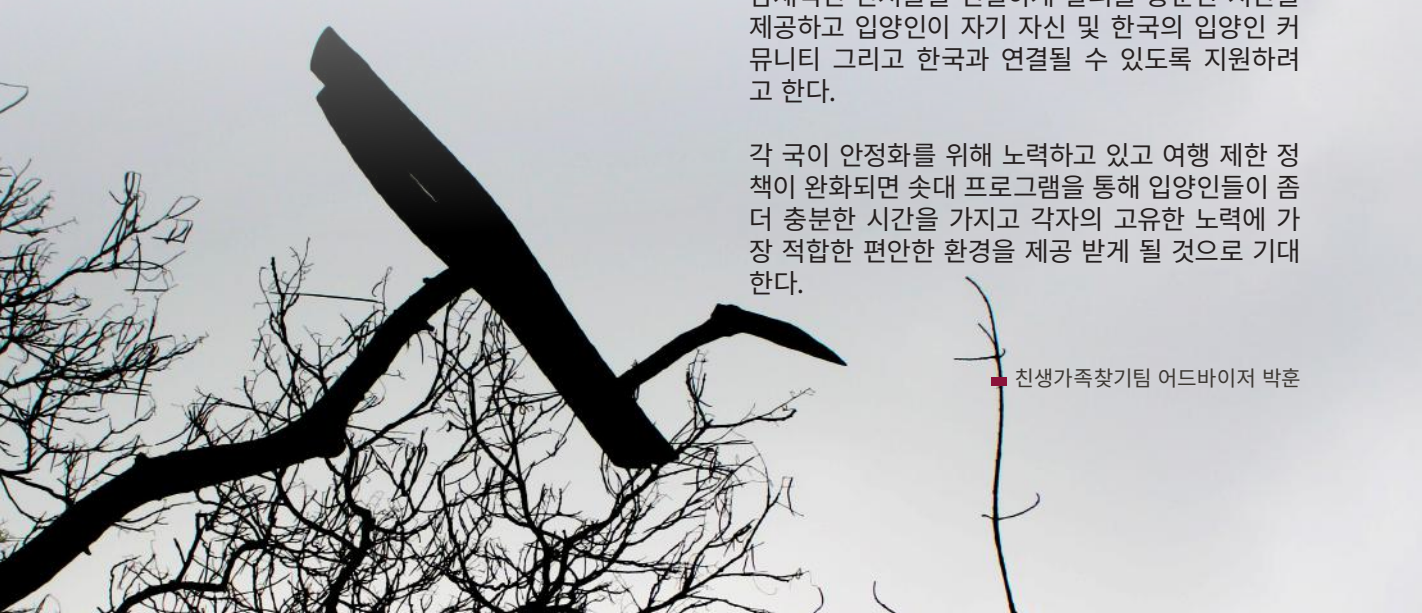
해외입양인연대의 2016년 모국방문행사에 참여하여 “능동적 가족찾기(active search)”를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능동적 가족찾기”가 모국방문행사만의 차별화된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2017년과 2019년 모국방문행사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했기에 다양한 영역에서 개선의 여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숫대**이다.

많은 입양인들에게 한국 방문의 기회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친생부모를 찾기 위해서는 시간과 감정이라는 에너지를 쏟아야 하기에 그렇고 또한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렇다. 어떤 입양인들의 경우는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단 한번만 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해외입양인연대는 더욱더 개인 맞춤형으로 “풀 서비스”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한다. 숫대는 입양인이 좀 더 능동적으로 가족 찾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들을 한국으로 초대해 이들이 입양 전 한국 연고지에 며칠간 머무를 수 있도록 하고 전문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며 역동적인 가족 찾기 일정을 제안하려고 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친생가족찾기 과정에서 알게 된 잠재적인 단서들을 면밀하게 살펴볼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입양인이 자기 자신 및 한국의 입양인 커뮤니티 그리고 한국과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한다.

각 국가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여행 제한 정책이 완화되면 숫대 프로그램을 통해 입양인들이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각자의 고유한 노력에 가장 적합한 편안한 환경을 제공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친생가족찾기팀 어드바이저 박은





코리 렘케

(하운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해결할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국내 거주 한인입양인 이야기를 연재하고 있다. 입양이 이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이 한국에서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 들어보고자 한다.

코리 렘케는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졸업 직후인 2013년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 후 친생가족을 만났고 자신이 태어난 전주에 살면서 일했고 서울의 분주한 지역인 강남구 역삼동에 본사를 둔 영어교육 사업도 시작했다.

정치학을 전공한 코리는 해외거주 민주당원모임 한국지부(Democrats Abroad Republic of Korea) 부의장이자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의회(Asian American Pacific Islander Caucus)의 공동대표이다. “조직화와 교육이 바로 제가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저는 공동체를 하나로 모으는 것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 사는 29세의 코리는 친생가족을 만난 이야기 등 한국에서의 경험과 공직 출마를 고려해 본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각을 나누어 주었다.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처음부터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미국 북부 아이오와로 입양되었어요. 저에게는 누나, 형, 그리고 여동생이 있고요. 형과 여동생도 한국에서 입양되었어요. 저희는 미네소타주와 아이오와주 경계선에서 한 2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인구 약 500명인 동네에서 자랐어요. 중학교 때 애리조나주 투산으로 이사했는데 그곳은 훨씬 더 다양성이 있는 곳이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애리조나 주립대학교(ASU)에 입학했고 이후 애리조나 대학교(University of Arizona)에서 국제관계 석사 학위를 받았습시다. 졸업 후 저는 한국으로 오기로 결정했죠.

입양인으로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요? 현재 한국에 살면서는 어떤가요? 한국에 살면서 생각이 바뀌었나요?

거의 8년 동안 한국에 살면서 제 생각은 변화를 거듭했어요. 이곳에 있는 것이 관점을 바꾸는 데에 확실히 도움이 되긴 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데 좀 더 적극적이었고요.

한국에 왔다 가는 다른 입양인들을 여럿 봤어요. 이들이 뿌리찾기도 하고 거주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면

서 느낀 가장 놀라운 점은 모두의 이야기는 다르다는 거예요. 많은 입양인 커뮤니티가 정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현실이고 사실이라는 식으로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입양인 커뮤니티 내에서도 이야기가 워낙 다양해서 입양인 이야기나 입양에 대한 관점은 획일화시킬 수는 없다고 봐요.

미국인의 관점에서 보면 미국인들은 자신의 미국에서의 경험을 한국에서의 경험에 많이 투영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인생과 제가 현재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이런 마음이 보편적인 감정은 아니라는 것은 인정해요.

2013년 한국에 왔을 때의 모습을 지금 되돌아보면 어떤가요?

제 성격은 같아요. 하지만 입양 측면에서 보면 이제는 입양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그때처럼 화가나 있지 않아요. 물론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해요. 하지만 적어도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는 모두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친생가족에 대해 화나는 마음을 갖기 어렵고 저를 입양해 주신 부모님을 원망할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결국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거니까요.

하지만 “지옥으로 가는 길은 좋은 의도로 포장되어 있다.”는 속담이 있죠. 아직도 외국으로 입양을 보내는 제도에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들도 많고요. 하지만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들은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러한 변화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요.

다시 본인 얘기를 해보죠. 한국에서의 처음 몇 년은 어땠나요?

E-2 비자로 학원에 취업했어요. 학원측에서 제 숙소를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이사도 많이 다녔던 기억이 나요.

일년 정도 후 전주로 이사를 했어요. 계약 기간이 한 달 정도 남은 상태에서 학원을 그만 두었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초급 한국어 과정을 수강했는데 그 때 저의 한국어 교수님의 교회 친구의 친구분이 전주에 있는 우석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분이 연구원을 찾고 있어서 저를 채용하신 거고요. 제 친생가족이 전주에 있어서 그곳으로 이사하게 되었어요.

매우 해로운 근무 환경이었어요. 사실 많은 한국 직장은 그런 것 같아요. (문화적 차이로 인해 생긴 부당한 사건 이후에) 전 결국 4개월 동안 사무실 청소를 해야만 했어요.

그 당시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한국에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많이 배운 것 같아요. 하지만 저에게 좋은 친구들이 많았어요. 가끔 주말에 서울에 올라가서 만났던 입양인 커뮤니티요.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 후 (약 1년 뒤에) 서울로 다시 돌아왔는데 전주에서의 경험이 저를 준비시켜준 것 같아요. 기업 고객들과 얘기할 때 그들이 어떤 일을 겪으며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는지 심지어 그들이 뭔가를 취소하거나 할 때도 아.. 결국 다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이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다시 서울에 왔을 때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나요?

한 달 정도 일자리를 찾아 다닌 후 성인을 가르치는 학원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1년 정도 일했는데 사실 별로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학원 시스템을 알고 있었죠. 나중에 그 학원이 제가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돈을 적게 줬다는 걸 알고는 그냥 중개인 없이 혼자 하는 게 낫겠다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혼자서 가르치기 시작했고 학생들을 모집했고 이제 약 3년 되었어요.



창업하는 것이 힘들지는 않았나요?

쉽게 할 수 있게 되어있어요. 교사 자격증도 있고 교육부에 개인과외교습 신고도 했거든요. 그 다음 외국인 납세자 등록을 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과정에서 한국 지인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한국어를 하는 지인의 도움이 없는 사람들은) 보통 서울글로벌센터에 많이 의존하지만 사실 한국에서 창업하기는 매우 쉽거든요.

어떤 걸 가르치세요?

전문 비즈니스 영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해요. 어쩌다 보니 의료기기업체 및 제약회사를 알게 되었거든요. 존슨앤드존슨과 보스턴 사이언티픽과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가끔 정치 저널 편집 작업을 하기도 하고요.

■ 국내거주 해외입양인 인터뷰

올해가 사업 측면에서는 어떻게 달랐는지요?

원래 올해 좀 확장을 할 계획이 있었는데 못하게 되었죠. 하지만 기회도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 미국에서 공부하던 한국인들이 많이 돌아왔고 한국에서 영어 수업을 계속 진행하고 싶어하고 학문적인 영어에 집중하고 싶어하기 때문이죠. 한국에서 입소문이 중요하잖아요. 이 곳 문화에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코리와 형제들. 왼쪽: 누나와 여동생, 오른쪽: 형과 형수, 조카

한국 가족과 재회한 경험은 어땠나요?

한국에 온 지 두 달쯤 후에 친생가족을 찾기 시작했어요. F-4 비자로 변경하려고 입양기관인 홀트에 필요한 서류를 받으러 갔는데 제가 친생가족을 찾고 싶은지 물어보더라고요.

이틀 뒤에 연락이 왔어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홀트에서는 그분들께 서신을 보냈고 그로부터 이틀 뒤에 저는 삼촌과 통화를 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가족은 8월에 정식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4월에 처음 연락을 했지만 실제로 만나러 전주로 내려간 것은 몇 달 후였어요. 전주에 있는 홀트로 가게 되었어요.

안내 받은 곳에는 영아원이 같이 있었는데 아기들이 있었고 같이 놀기까지 했어요. 사실 좀 벅찬 경험이었어요. “전주에 친생가족을 처음 만나러 와서 기다리는 동안 아기들이랑 놀고 있다니... 좀 부담스럽네” 이런 생각이었죠. 그렇게 약 한 시간 정도가 흘렀어요. 그러고는 위층으로 가서 삼촌과 숙모를 만났죠. 통역사가 한 시간 정도 늦게 왔어요. 거기에서 그렇게 앉아 있는 것... 힘들었죠. 처음 10분 정도는 사진을 같이 보고 나누었고요. 그 다음 통역사가 와서 제가 홀트에서 들었던 모든 내용을 저에게 말해주었어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생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과 병원에 계시다는 거였어요. 또한 어머니포함 형제가 모두 9명인 대가족이라는 거요. 그리고 제가 태어났을 때는 어머니가 저의 외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고 입원한 상태는 아니었대요.

어머니는 오랜 기간 집을 떠나있다가 돌아오곤 했대요. 그런데 한번은 임신한 상태로 돌아왔대요. 그때 약 임신 8개월이었고요. 그게 저였죠.

정신건강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한국인들은 정신건강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라고 하지만 제가 여기서 느낀 것과는 달라요. 어머니 상황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긴 한대요.

한국에 살면서 정신건강관련 제 주변에서 느낀 건 아주 긍정적인 경험이었어요.

한국 친구들과는 어떤가요?

글쎄요. 물론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한국친구들에게 저는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저는 다른 문화에서 왔고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경쟁하는 사이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한국친구들이 자기 생각을 진솔하게 털어놓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있어요. 한국 남자와의 일대일로 만나요. 그룹으로 한국 남자들을 만나지는 않아요. 한국 남자들의 문화나 가치관이 저와 거리가 멀고 솔직히 참고 견딜 만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전주 한옥마을에서의 코리와 코리의 사촌

친생가족과 계속 연락하며 지낸다고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어떻게 발전되었나요?

보통 추석이나 설날 병원을 방문해요. 그건 상황에 따라 달라요. 보통 삼촌이나 이모가 그분들 아이들과 저를 같이 데리고 가요. 사촌이 네 명 있는데 저를 다섯 번째 아이로 입양한 것처럼 되었네요.

삼촌, 이모와 함께 있을 때나 온 가족이 같이 있을 때

항상 한국어로 얘기해요. 아리조나주립대에서 한국어 1년 배웠고 전주에서 일하기도 했고요. 죽기 아니면 살기였죠. 처음에는 한국어를 거의 못했고 2년 정도 지나면서 매일 뭔가를 배웠고 그렇게 한국어를 배우게 된 거죠. 하지만 전주에서는 사투리를 쓰다 보니 처음에는 매우 힘들었죠.

하지만 사촌들과 일대일로 얘기할 때에는 영어로 해요. 저보다 어린 사촌 두 명과 잘 지내요. 정말 열심히 노력해줘요. 사실 그것보다 더 바랄 게 있나요. 저도 열심히 하고, 그들도 열심히 해요. 저희 모두 열심히 해요. 그건 좋죠. 정말 감사해요.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한국 가족과 기억이나 생각의 틀, 경험을 공유하고 있지 않지만 성격이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 가족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정말 많지만 한국 가족으로부터 받은 것들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한국 가족과의 어떤 공통점을 알게 되었나요?

꼭 집어서 말하기는 힘들어요. 저는 굉장히 외향적인데 미국에 있는 가족은 모두 상당히 내성적이예요. 미국 집에서 저 빼고는 아주 조용하죠. 저 혼자 생기발랄하게 온 집안을 휘젓고 다니죠. 심지어 입양된 형과 여동생도 상당히 내성적이예요. 그런데 한국 가족은 상당히 활발하죠.

외향성이 어디서 왔는지 이제 알게 되었군요.

네 참 희한하죠. 한국 가족은 매우 외향적이고 아주 따뜻한 사람들이예요. 매우 감성적이고요. 미국 가족 중에도 몇몇은 감성적이지만... 음... 똑같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들은 유전적이라고 느껴져요. 정말 웃기게 들릴 수도 있지만 기차역 계단을 내려가다가 사촌이 걸어 내려가는 것을 봤는데 저랑 걸음 걸이가 같은거 있죠. 둘 다 똑같이 우스꽝스러운 걸음걸이요 (웃음).

이 두 가지가 제가 느낀 가장 큰 공통점이예요. 음악도 그래요. 한국 어머니는 음악을 매우 좋아해요. 병

원에서 자주 노래하곤 하세요. 미국 가족들은 아무도 음악적이지 않으니 그것도 있네요.

한국가족들 집에 가끔 가면 자기가 어디 출신인지 알려주고 싶어하는 데 뭐 좋긴 하지만 그럴 때면 제가 다른 사람을 몰래 훑쳐보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저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 같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뭔가 잘 보이려고 하는 듯한 느낌도 들어요. “우리 그렇게 가난하지 않아” 이런 거요. 아마 저를 입양 보낸 것에 대해 수치심을 느껴서 우리 가족이 어떤 사람들인지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같고 그럼 전 괜찮아요 난 부끄럽지 않아요 라고 하고 싶죠. 박물관에 가기도 하고 이런저런 활동도 해요. 그런데 그런 건 사실 제 스타일은 아니예요. 저는 그냥 밥 먹고 얘기하고 싶거든요. 특히 정치에 대해서요. 점점 그렇게 되고 있어요. 사실 정치 얘기도 했고요 (웃음).

학부에서는 정치학을 대학원에서는 국제관계학을 전공하셨잖아요. 현재 언어학 대학원 과정을 밟고 있다고도 말씀하셨고요. 공직에 출마하거나 교육행정직에서 일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잘 모르겠어요. 아마 현재 단계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대중의 주목을 받을 준비가 되어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 특히 교육, 언어 교육 및 정책 관련 변화는 흥미로운 일이죠.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이 많아요.

미국 학교의 언어 교육 정책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더 나은 구조가 필요해요. 이민자 자녀의 경우 콘텐츠 수업에서 영어를 배우도록 하고 이들을 적절하게 주류에 편입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을 위한 학문적 영어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애리조나주와 캘리포니아주가 특히 문제인 것 같아요. 이들을 주는 국경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니 특히 이런 문제의 최전선에 있다고 봐요. 하지만 미국 전역을 보더라도 국민들이 영어를 제대로 배울 수 있게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도 특히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포함한 모두가 사회의 주류로 진출해서 생산적인 시민으로서 참여하도록 돕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성숙한 생산적인 사회 구성원이 되는 걸 방해하는 이데올로기가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워요. 다양성은 우리 사회를 풍요롭게 하거든요.

중요한 일이에요. 특히 다양성의 경우 이런 관점을 더 밖으로 표출시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이런 목소리가 확실하게 전달되어야겠죠.

질의응답은 요약 및 편집되었습니다.

■ 질문: Roger Van Scyoc ■ 답변: Cory Lemke

“3차 유행”의 물결에 적응하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바꾸어 놓은 서울 거주 입양인들의 생활

*전문은 iam.goal.or.kr에 있습니다

마티유 몰레스

프랑스 입양, 셰프 & 레스토랑 운영



올해 가을 프라이빗 키친 컨셉의 레스토랑을 개업했다. 두바이에서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을 수 년간 운영하던 나는 한국으로 돌아와 제철 재료로 만든 프랑스 요리를 다양한 와인과 함께 선보이는 레스토랑을 개업하기로 했다. 우리 레스토랑은 예약제로 운영되며 프라이버시와 친밀감을 제공하기 때문에 찾는 이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기 전 레스토랑 운영시간은 화요일부터 일요일, 저녁 6시부터 새벽 1시까지였다. 2.5 단계 격상 이후 모든 식당은 오후 9시에 영업을 중지해야 하는데 이는 손님들이 9시 전에 모두 식당에서 나가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정부는 업주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조치 이후 우리는 손님들을 재촉하지 않고 즐거운 레스토랑의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시간 일찍 문을 열기 시작했다.

우리 레스토랑의 컨셉은 저녁 식사 후 와인을 음미하는 것이다. 8인 이하의 그룹을 위한 세트 메뉴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아이디어였다. 12월에는 맥주 브랜드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오후 9시에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저녁에 두 번 손님을 받고 여기에 점심을 추가하고 마지막 저녁 서비스 한번을 없었다. 음식 준비 과정은 똑같지만 점심식사 준비를 위해 훨씬 더 일찍 출근해야 한다. 외식을 하기에 최적의 때인 크리스마스와 새해에 손님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포장 서비스 제공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단체 손님 예약이 많았지만 모두 취소됐다. 올해에는 연휴 메뉴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1월 초에 상황을 봐서 단골 손님들에게 크리스마스 메뉴를 제공하며 연말의 축제 분위기를 이어갈까 고민 중이다.

솔직히 내 하루 일과는 일 이외에는 많이 바뀌지 않았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이후 퇴근을 더 일찍 하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 이는 전혀 나쁜 일이 아니다.

케이트 메인 (편하라)

미국인 입양, 프리랜서 마케팅 컨설턴트

2020년은 20년처럼 길게 느껴지면서 동시에 20초처럼 아주 짧게 느껴지기도 했다. 세계 역사상 가장 위험한 바이러스로 불리게 될 것에 대해 처음 들은 게 엇그제 같다. 확진자가 늘어나고 학교와 회사들이 문을 닫으면서 생긴 휴식 시간을 친구들과 카페에 앉아 보내던 기억이 난다. 그로부터 머지않아 나는 이 바이러스가 꽤나 위험하고 마스크 착용은 필수이며 어디를 방문하고 누구를 만나는지에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을 알았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짜증도 났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돌아보면 한국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 상황을 통제하기 위한 초기 대응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한다. 다른 나라들이 단지 자신들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위해 지역사회를 보호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개인적으로 바이러스는 그냥 익숙해져야 할 대상이었다. 곧 지나갈 거라고, 한 해를 겪으며 마주하는 짜증나는 일 중 하나일 거라고 스스로 되뇌었지만 바이러스는 계속됐고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사실 나의 올해는 축하할 일과 함께 시작됐다. 엄청난 양의 서류작업 끝에 이중 국적을 인정받았고 행복한 한 해를 예상했다. 슬프게도 올해 내 삶에 악영향을 미친 건 바이러스 뿐만이 아니지만 긴 인내를 필요로 하는 일은 바이러스 뿐이다. 다행히도 나는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적인 타격을 받지 않았다. 오히려 수 많은 일 제안을 받았지만 그 이야기는 다른 날을 위해 남겨두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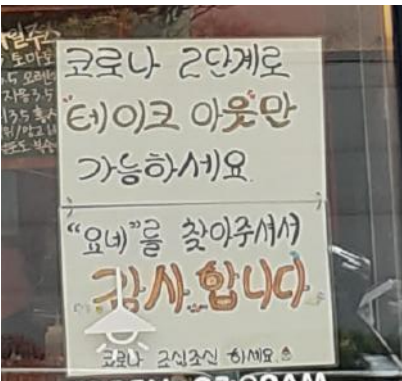
크리스틴 박 (이영숙)

미국 입양, 대학 강사

12월 중순의 어느 목요일 오후, 돼지국밥을 끓이고 있는 압력솥 벨브가 내려가는 소리를 듣고 있다. 요즘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두번째로 높은 단계)로 격상되면서 집에서 요리할 시간이 늘었다. 이 때문에 내가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직장은 3주동안 문을 닫았고 내 “진짜 직업”인 대학에선 2020년 내내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해 진행했다.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 지금이 애완견을 입양하기에 좋은 때라고 생각했다. 홈 쿠킹의 테마를 이어가기 위해 지난 11월 말에 입양한 애완견의 이름을 후추로 지었다. 후추에게 주기 위해 돼지고기를 샀지만 관심을 보이지 않아 내가 먹게 됐다. 국밥에는 지난주 해외입양인연대에서 받아온 무료 김치가 곁들여질 것이다.

집에서 이렇게 자주 요리를 하게 된 이유 중 또 하나는 친구들을 만나 저녁을 먹을 기회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9시 통금이 적용됨에 따라 음식점들은 이 시간 이후에는 식당 내 손님들을 내보내야 하고 배달과 포장 손님을 위한 음식만 판매할 수 있다. 9시 통금은 본래 회사들의 회식을 지양하기 위한 것이지만 여전히 점심 시간의 식당들은 손님들로 넘친다. 이 같은 조치는 오히려 또 다른 러시아워를 만들어내는데 손님들이 한꺼번에 식당을 나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후추와 내가 이런 시기를 보내는 방법은 동네를 구경하고- 물론 마스크를 쓰고서!- 요리를 하거나 소파에 앉아 배달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서로를 알아가며 지내는 것이다.



키 올센 (한운기)

덴마크 입양, 삼성 엔지니어

사실 난 코로나 전에는 마스크를 거의 쓰지 않았다. 미세먼지가 아주 심할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마스크가 자유를 침해한다거나 마스크 쓰는 게 불편해서는 아니고 그냥 평소 대기오염 정보를 전혀 확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밖에 있는 동안 내 주변을 맴돌며 언제든지 몸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 내가 자란 덴마크에서는 이런 위험은 생각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잘 몰랐다.

마스크를 쓰는 것은 사실 뭐 별거 아니고 내 일상에 큰 지장을 주지도 않는다. 모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국 밖으로 가보면 어떤 나라에서는 마스크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부의 노예가 되게끔 하며 산소를 빼앗아 가서 결국 사람들을 죽일 거라고 믿는다... 코로나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일 거라고 믿는 것 같다.

한국에서도 일상은 지속되고 있다. 많은 것들이 코로나 이전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물론 어떤 것들은 다르다.

과연 이를 극복할 지 궁금하다. 마스크 착용 말이다. 왜냐하면 인류가 코로나는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의 뉴스를 보면 마스크 착용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지에 대해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는 같은 시간에 이곳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현 상황을 즐기며 살기 위해 애쓰고 있다.



우리 가족은 바쁜 도시를 떠나 서울 근교나 혹은 좀 더 먼 곳에서 아름다운 산과 강같은 자연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 여섯 평 남짓 한 공간에서 300명이 내쉬는 공기를 다시 마시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경험! 그래서 올해 캠핑을 다녔다. 수년 동안 말로만 했던 것을 실천하기에 완벽한 기회였다. 캠핑을 하려면 사전에 준비할 것들이 좀 있어서 우리는 주말에 주로 공원 같은 곳으로 가벼운 여행을 가게 되었다. 캠핑가는 건 정말 좋다. 우리가 캠핑하는 해변은 코로나로부터 자유롭다. 초라하고 방수도 완벽하게 안되는

텐트를 친 숲에도 코로나는 없다. 코로나 이전의 순수한 휴가의 느낌이며 한국에는 아름다운 캠핑 장소가 수없이 많다!



우리 가족의 일상은 대체로 일, 유치원 그리고 저녁에 뭘 먹을지가 주요 관심사이다. 당연히 유치원들은 이런 정성 어린 부모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최고의 안전을 제공하려고 한다. 릴리의 유치원도 예외는 아니다. 직원을 제외한 어른들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의미이다. 입구에서 아이들을 등원 시키는데 들어가기 전에 나는 전날 아이가 하원 후 어디 갔었는지 알리는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선생님은 딱 릴리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문을 연다. 아마 내가 몰래 따라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다. 원래 그런 건지 모르겠다?!

선생님은 소형 체온계를 릴리의 이마에 대고 체온을 측정한다. 릴리가 입구로 들어가면 신발을 벗고 4세 아이의 키에 맞춰진 로봇같이 생긴 열화상카메라로 걸어간다. 앞면에 태블릿같이 생긴 큰 화면이 있고 가까이 가면 얼굴을 감지하는 카메라가 있다. 화면에 있는 원 모양에 얼굴이 들어가도록 하면 체온을 정확하게 한번 더 재는 것이다. 끝나면 로봇이 큰 소리로 체온을 확인했다고 알려준다. 그러면 통과할 수 있다.

나는 비슷한 장치가 있는 회사로 간다. 릴리가 유치원에 들어가기전에 하는 것처럼 나도 정해진 양식에 전날 방문했던 곳을 작성하여 회사 코로나관리팀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작성하지 않으면 입구에서 큰 소리가 나면서 출입문이 무작정 내 앞길을 막을 거고 보안요원 5명이 나에게 설명을 할 것이다.

퇴근 후 가장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저녁식사로 뭘 먹을 것인가. 한국에 살던, 스웨덴 또는 브라질에 살던 저녁 메뉴를 결정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부분이다. 다행히 한국은 전세계에서 배달 서비스가 가장 발달한 나라 같다. 코로나로 인해 배달서비스가

외식이나 슈퍼에 가는 것보다 더 좋은 선택사항이 되었다. 그래도 저녁으로 뭘 먹을 지 합의를 봐야하니 코로나와 관계없이 그 점은 똑같다.

겨울이 시작됐다. 키즈카페가 아주 잘 되는 계절인데 코로나로 인해 출입금지이다. 여름은 수월하게 지냈지만 겨울은 다르다. 한국에서 실내 활동은 가끔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이 아주 작은 공간에 있거나 아님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장소가 좁아 보이는 걸 수

도 있지만 어쨌든 둘다 코로나 상황에서 좋아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주말마다 고민을 많이 하지만 현실은 아마 이번 겨울은 다른 해보다 길게 느껴질 것이며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을 것이다. 하지만 집도 전혀 나쁘진 않다. 집이야말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깐.

빈센트 성 벌스트라이텐

벨기에 입양, 프리랜서 사진가 & 작가, 셰프

바이러스가 창궐한 지난 2020년 3월 이후 1년도 채 안돼서 나는 실직한 수 백만명의 '피해자' 중 한 명이 됐다. 지난 3월 중순까지만 해도 나는 10년간 태국에서 살면서(2010년부터 2020년까지) 코사무이에 사는 아들 쟈(8세)와 가까이 지냈다. 하지만 상황은 빠르게 변했다. 태국은 몇 개월간 락다운과 통금을 요하는 매우 엄격한 '긴급 법령'을 발표했고, 수 천명이 직업을 잃기 시작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분야는 여행산업이었다. 직업을 잃고 저축해놓은 돈을 4개월 사이에 다 쓰자 나는 가족의 생존을 위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2020년 7월 말 한국이 효과적인 방역을 하고 있었기에 나는 한국으로 돌아와 일을 구하기로 결심했다. 당시 한국에는 락다운이나 제재, 통금이 없거나 거의 없다시피 했다. 기업과 상점들은 "뉴노멀"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당시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물론 현재도)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한국인과 거의 동일한 권리를 보장하는 F-4 비자를 가지고 있는 한인입양인으로서 나는 서울에 살면서 바이러스가 진정되거나 백신이 널리 보급되기까지 기다리기로 결심했다. 내 일은 의료용품이나 코로나 19 진단 키트 등 빠른 배송이 필요한 물품들을 배달하는 것이었기에 매번 긴급 상업용품이나 의료용품을 미국이나 멕시코에 배달한 후 한국으로 귀국할 때 마다 지켜야 하는 14일간의 의무 자가격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지난 8월 내 첫 자가격리 경험은 완전 지옥 같았다! 두 번 고아가 된 사람으로서, 첫 번째는 두 살때쯤 부산에 버려졌을 때, 그리고 두번째로 1998년에 벨기에에 프랑스인인 내 양어머니가 새아버지와 차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나는 감옥에 있는 느낌이었다. 내가 빌린 에어비엔비 원룸에는 침대가 겨우 들어가는 좁은 공간과 작은 화장실 그리고 보일러와 실외기가 있는 작은 테라스 밖에 없었다. 나는 2주간 4개 벽 사

이의 좁은 공간에 갇혀있었다. 그때 나는 집이 없었고, 서울에서 렌트할 제대로 된 아파트를 찾는 데는 2개월이나 걸렸다.

낮과 밤이 바뀌기 시작했고 나는 외로움과 함께 자살 충동을 자주 느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전화도 할 수 없었다. 양아버지는 몇 년 전 나와 역시 입양된 내 여동생과 연락을 끊었다. 서른 살 넘어 그러니까 진정한 성인이라 할만한 나이가 된 후 나는 마침내 내 입양가족의 이야기가 비극적이었던 걸 인정할 수 있었다. 물론 나는 아직도 벨기에로 입양돼 상대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에 입양된 것에 대해 감사한다.

락다운이나 집에서의 자가격리를 매번 겪어내기엔 많은 용기와 긍정적인 마음이 필요하다. 이 같은 시간은 사람을 고독하고 외롭게 만든다. 어쩌면 우리는 독립적으로 살고 "동굴에 숨어" 생존하는 방법을 익혀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직업 없이 마지막 자가격리를 끝냈을 때 나는 내 열정을 따라 마마 서울이라는 이름으로 맛있는 홈메이드 음식을 만들고 포장과 배달 음식을 만들며 서울 시민들에게 새로운 음식을 선보이기로 했다.

한국에 사는 입양인들을 지원하는 해외입양인연대에 감사하고 여기서 제공한 "긴급생활용품키트"는 이 같이 힘든 상황에 우리의 기분을 전환시켜주는 좋은 방법이었다고 생각한다.

많은 입양인들이 한국으로 돌아와 살고 있는 것을 안다. 내 이야기는 많은 목소리 중 하나일 뿐이다. 용기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이겨내길! 우리 입양인들은 어릴 적부터 타국에서 살면서 정체성을 찾기 위해 많은 역경을 이겨내왔기 때문에 쉽게 굴복하지 않는다.



제8기 입양아카데미 수료식 2020.11.14

사단법인 입양가족상담교육협회 부설 한국입양가족상담센터

사단법인 입양가족상담교육협회(KA AFC)는 건강한 입양가족이 건전한 입양문화를 이끌 고자하는 목적을 갖고 2019년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되었습니다. 입양가족, 상담교육 전문가, 사회복지사 그리고 입양후원자로 구성된 비영리 사단법인 단체입니다. 입양 사전/사후 전문 서비스 기관으로 입양심리상담을 전담하고 있는 한국입양가족상담센터가 부설로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1999년 말부터 오랜 비밀입양 문화에 저항하는 공개입양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입양가족들은 혈연주의 가족관과 차이와 다양함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회분위기에서 극단적인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려져있었던 입양 가족들의 실제 생활이 드러나면서 입양전문 상담과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국입양가족상담센터는 영아가 아닌 나이든 아이(older children)를 입양한 가족들의 적응과 아동발달치료 서비스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특수유구아동(Special needs children)은 충분한 이해와 준비를 갖춘 후에 입양을 결정하도록 도우며, 배치 후에도 치유적인 가정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부모와 가족을 상담과 교육으로 적극 지원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입양가족에 대한 이해부족과 편향된 입양 담론들이 입양의 속성을 왜곡시키거나 입양 실천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입양된 아이들은 안전하고 건강한 가정에서 자라야 할 것이고, 입양가족들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그 무엇보다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이 열여덟 살이 되도록 임시 보호 시설 속에서 방치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본 협회는 입양특성화 전문 상담과 교육으로 입양가족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국내입양홍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상담

입양 결정이 어려운 사람, 입양절차를 진행 중인 예비부모, 입양인, 입양부모, 출생부모를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합니다. 성인용 상담은 정신분석, 부부상담, 가족치료가 있으며, 아동·청소년용으로는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한 심리정서치료, 입양정체성 집단 상담이 있습니다. 개인이나 가족이 심리적 갈등이 발생할 때 그 원인을 막연히 입양으로 귀인 시키거나 혹은 역으로 입양이슈를 적극적으로 부정·회피 하는 무의식적 역동을 입양심리 전문상담사는 분석하여 문제 해결을 돕습니다.

교육

입양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아동중심 입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한국은 저 출산, 가족해체, 입양기피 현상이 역력합니다. 입양교육 강사들은 '생명존중'과 '가족가치'를 고수하면서, 아동의 가정에서 자랄 권리와 자신의 알권리를 설파합니다.

일반인 대상으로는 입양이해, 반편견반차별, 입양홍보를 주제로 한 사회교육을 실시합니다. 입양부모 대상으로는 양육기술, 입양정보수집, 입양정체성, 입양편견 대처기술을 주제로 하여 입양통찰력을 키웁니다.

연구

개인, 가족, 사회 심리와 입양의 개연성을 조사하고 밝혀내는 연구활동을 합니다. 입양경험이 상담심리학, 사회복지학 등 관련 학문과 통합되어 새로운 입양지식이 창출됩니다. 그것들은 상담과 교육의 기초 자료가 되어 입양가족 사후 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입양연구회 및 입양가족상담 사례연구회는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물인 입양도서와 자료집은 출판합니다.

입양 전문가 양성

입양가족의 정신건강과 성장발달을 돕는 입양심리 전문 상담사와 부모교육과 사회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입양교육 전문 강사를 양성합니다. 그들은 입양지식을 습득하고 입양통찰력을 갖춘 전문 직업인으로 입양 현장에서 서비스 공급자로 활동합니다.

본 협회가 규정한 수련과정을 거친 사람은 입양전문가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수련과정에는 입양아카데미, 문지방상담워크숍, 입양심리워크숍, 입양세미나, 상담 및 교육 실습, 상담사례연구가 포함됩니다.

최근 몇 년간 진행하고 있는 입양가족 사전·사후 서비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1. 찾아가는 문지방상담 프로그램
2. 입양가족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3. 아동·청소년 발달촉진 프로그램
4. 입양인사이트 부모교육 프로그램
5. 입양정체감 향상 집단상담 프로그램
6. 국내·국외 성인입양인 지지 프로그램
7. 위기입양가족 사례관리 프로그램



사단법인입양가족상담교육협회 부설
한국입양가족상담센터

웹사이트 www.kaafc.or.kr / kaafc@naver.com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3,
1212호(효성인텔리안)

전화 031-425-6011 / 070-4201-2770



“나 엄청 큰 비밀이 있어... 나 입양됐어.”

해외입양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비슷한 이야기를 떠올리고 비슷한 질문을 한다. “나는 왜 입양되었지? “만약 내가 다른 가정에 입양되었다면 어땠을까?” “만약 내가 입양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이번 호에서 우리는 경기도 평택에 사는 국내입양인 최순영씨를 만났다. 순영씨와의 만남은 해외입양인들이 별로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을 해보게 만든다. “내가 한국 가족에게 입양되었다면 어땠을까?”

최순영씨는 1999년 12월에 태어났고 생후 5개월에 입양되었다. 순영씨의 이야기는 다른 많은 입양인들이 공감할 만한 곳에서부터 시작된다. 신생아였던 순영은 12월 중순 담요에 싸여 경찰서 주차장에 버려진 채 발견되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얼굴이 파랗게 변한 상태였다. 아기를 발견한 경찰관들은 병원으로 아기를 데려갔다. 21세기 뉴 밀레니엄을 앞두고 병원에는 아기가 너무 많아서 직원들은 순영을 돌볼 수 없었다. 그때 경찰관 중 한 명이 달려와 순영에게 우유를 먹이기 시작했다. 너무 춥고 배고팠던 아기는 우유를 정말 잘 먹었다. 이 경찰관은 순영이 우유 먹는 모습을 내려다 보았고 나중에 순영에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순영아 난 너를 처음 본 순간 반해서 입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그렇게 처음 만나게 되었고 그 경찰관은 마침내 순영의 아버지가 되었다.

순영이 입양되고 나서 얼마 후 순영의 부모님은 순영에게 여동생이 생기를 바랐다. 그래서 딸을 입양할 계획이었지만 생후 7개월 된 남자아이를 입양하게 되었다. 약 2~3년 후 또 다른 남자아이를 입양했고 또 다른 아이를 입양하고 그리고 마침내 순영이 8살일 때 여동생이 생겼다.

둘째 남동생을 만나러 가는 길에 부모님이 차 안에서 매우 긴장하고 있던 모습을 순영은 기억한다. 어머니의 손은 운전하는 동안 계속 떨렸고 순영은 아버지와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는 큰 스케치북을 꺼내 순영이 다른 엄마에게서 태어났으나 그 엄마가 순영을 돌볼 수 없어서 이 가정으로 오게 되었고 그렇게 가족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설명해주었다. 언젠가 순영은 입양에 대해 이렇게 생각했던 것을 떠올린다. “입양이란 것은 어딘가에 가서 아기를 만나고 그 아기가 우리 집에 와서 계속 같이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 아기도 우리 엄마 아빠를 나처럼 자기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거구나.” 그녀는 입양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들이 입양을 통해 가족이 된다고 생각했다.



순영이 8살 때 친구 엄마가 임신 중이었는데 순영은 임신부를 그 때 처음 봤다. 임신이 정말 이상하고 어색하

다고 생각했다. 순영은 자신이 입양된 것을 알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엄마한테 “내가 엄마 배에서 나온 거예요?”라고 물었다. 자기도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다는 말을 듣고 싶었지만 어머니는 “나는 너를 가슴으로 낳았어.”했다. 순영은 상당히 혼란스러웠다. “가슴에서 아기가 자랄 수 있나요? “어떻게 아기가 가슴에서 나올 수 있어요?”라고 말하며 당시를 떠올리며 웃는다. “정말 어색했어요. 그때부터 입양에 대해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고 태어나는 것과 입양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당시 대부분의 한국 가정은 입양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한국에는 사실 (국내)입양인이 많지 않고 2000년 이전에는 비밀입양이 이루어졌다고 순영은 설명한다. 하지만 순영의 부모님은 입양으로 딸을 만나게 되어 기쁘기 때문에 입양을 비밀로 하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다니던 교회에 순영을 입양했다고 알렸다. 순영의 가족을 만나고 나서 여덟 가정이 자녀를 입양했다. 순영은 입양가족 모임에도 많이 참석했다. 그곳에서 입양이 얼마나 좋고 사랑이 넘치는 일인지 알게 되었다. 그래서 순영은 이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다. “어렸을 때 입양은 정말 좋았어요.”라고 말한다. 순영은 입양된 사실이 자랑스러웠고 모두에게 알리고 싶었다.

입양을 이렇게 좋게 생각하던 순영이었기에 나중에 입양에 대해 자신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한번은 순영이 미용실에 갔을 때 자신이 입양되었다고 했는데 그 말을 들은 미용사는 깜짝 놀랐고 뭔가 알 수 없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순영은 친구들과끼리 비밀 얘기하는 게 유행이었던 학원에 다녔던 것을 기억한다. 순영은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나 엄청 큰 비밀이 있어. 사실 나 입양됐어”라고 말했고 친구들은 매우 놀란 반응을 보였다. 처음에 친구들은 입양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입양이 마치 “새” 엄마를 갖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친구 몇 명은 순영을 걱정했고 “그럼 넌 집안일 많이 해야 해?”와 같은 것들을 물었다. 순영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게 있었던 것이다. 신데렐라나 백설 공주와 같은 동화 속 새엄마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지. 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새엄마? 그럼 진짜 엄마 아니네.” 이 말을 들은 후 순영은 속상했고 더 이상 자신의 비밀을 얘기하고 싶지 않았다.

순영의 조부모님 중에서도 입양을 좋지 않게 보는 분들이 계셨다. 그분들은 순영의 부모님이 왜 그렇게 아이들을 많이 입양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순영이 바로 옆에 앉아 있을 때도 “입양해서 사랑으로 키워도 어른이 되면 부모를 배신할 거야.”라고 말하곤 했다. 순영은 “난 안 그럴거야”라고 말하며 그들을 안심시키곤 했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들 때문에 순영은 12살부터는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순영은 지금까지 살면서 입양에 대한 현재의 관점을 형성하도록 해준 두 번의 전환점이 있었다고 한다. 첫 번째는 국내 입양 캠프 기간이었다. 순영은 생모들이 입양을 위해 자신의 아이들을 포기하는 기관으로 갔다. 순영은 그곳에 있는 것이 불편했다. 특히 입양인들이 자신의 생모에게 편지를 써야 했기 때문이다. 순영은 딱히 생모에 대한 좋은 감정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할 말이 없었다. 자신이 입양에 대해 느끼기 시작한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생부모의 탓으로 돌리며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는 것은 모두 생부모 때문이야. 나를 낳아준 엄마는 나를 책임지지 못했어.” 순영은 자신이 입양된 것에 대해 화가 난 것 같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이 캠프에서 순영은 자신을 보며 많이 울었던 생모 5명을 만났고 그들은 순영을 보며 “내 아이도 잘 컸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도 좋은 부모님을 만났으면 좋겠네.”라고 얘기했다. 이런 모습을 본 순영은 “아마 내 생모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야”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분노와 슬픔의 감정이 사라졌다.



두 번째 전환점은 12살 때 찾아왔다. 순영은 (입양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자신이 머물렀던 시설에 같이 있던 친구를 만났다. 순영은 5개월일 때 입양되었지만

그 친구는 7살때까지 그 시설에 머물렀다. “저는 입양되어 잘 살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국내든 해외든 입양되지 않은 많은 아이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되면서 저에게 입양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입양은 좋은 것일까? 나쁜 것일까? 나 자신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지?” 이러한 자기 성찰은 청소년기까지 계속되었고 가장 큰 문제는 “내가 가족의 일원이 될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인가”였다. 자신의 유년시절을 떠올리며 “저는 다른 어른들에게 제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 했고 부모님의 말씀에도 순종하고 착한 아이였어요.”라고 얘기했다. “부모님이 나를 입양하기 잘했다고 느끼게 해야해”라고 생각했는데 이는 큰 부담이었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순영은 자신이 “가족의 일원이 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부모님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부 해외입양인들이 입양 여부와 상관 없이 한국에 남아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고 궁금해 하는 환상에 관해 묻자 순영은 “그냥 보육원에 머무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라고 이야기한다. “보육원 아이들은 한국 나이로 스무 살이 되면 얼마 되지 않는 돈을 가지고 떠나야 해요. 약 500만 원이라고 들었는데, 집도 구해야 하잖아요. 문제는 보육원을 떠나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 결국 다시 함께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곳에서 새로운 아기가 태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상황은 또 다른 아이가 입양이나 위탁 양육 시스템에 들어가는 순환구조가 지속되도록 한다.



세바시 무대 뒤편에서 준비중인 순영

한국 문화가 여전히 입양을 쉽게 받아들이지는 못하지만 대부분의 국내입양인들은 가족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순영은 말한다. 하지만 모든 입양인이 그렇지 않다는 점도 인정한다. 어떤 입양인들은 가출을 하는 등 극단적인 경우도 있다. 많은 입양인들은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만 순영을 포함한 또 다른 입양인들은 평생에 걸쳐 입양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기도 한다.

순영은 한국의 뉴스, 드라마, 영화가 입양인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미디어에서 입양인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가족을 쉽게 배신하고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입양인들이 생모를 찾게 되면 생모와 함께 살기 위해 떠날 거라고 보여주는데 이는 순영의 조부모님도 걱정했던 부분이다. 이제 순영은 자신의 입양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남동생과 관련 유튜브 영상도 만든다. 순영은 세바시에 출연하기도 했는데 조회수가 4만을 넘는다. TV 프로그램과 협력하여 한국 사회의 입양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고 문제를 제기 하고자 한다. 순영 뿐 아니라 다른 입양인들도 입양의 날이나 미디어를 통한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사회적, 국가적, 개인적 차원의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국내입양인들이 배신을 할거라는 오명을 쓰고 있긴 하지만 순영은 자신의 생물학적 정보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인지에 대해 얘기하면서 국내 및 해외 입양인이 이런 감정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말아야한다고 말한다. 모든 입양인들에게 원한다면 생부모를 찾아보라고 권하지만 때때로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하지만 시도하는 과정 자체가 긍정적인 경험 일수있고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순영은 친생부모를 찾고 싶은 마음이 당장은 절실하지 않지만, “언젠가 할 수 있다면 해보고 싶다”고 말한다. 요즘 자신의 생모에 대해 생각하고 있으며 생모가 슬퍼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12월 제 생일이 다가오고 있을 때 말이에요. 생모가 저를 생각하며 슬퍼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왜냐면 저는 가족과 함께 정말 잘 지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회가 된다면 생모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고 자신의 출생이나 생물학적 정보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말한다.

순영은 생모가 자신을 걱정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생일이 다가오는 12월이면 슬픈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한다. “그날이 제가 부모님을 만난 날이기도 하지만 버려진 날이기도 하니까요. 길거리에 있었고, 추웠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울 수도 있었지만, 저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일년 중 11월까지의 잘 지내다가도 12월이 오면 버림받은 그 당시 기분이 어땠는지 생각해보면 좀 슬프다고 말한다.

스물한 살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순영은 그런 기억을 회고하고 있다. “그 기억들이 저에게 계속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 자신을 계속 찾고 싶어요. 그런 기억이 일년 중 특정한 기간에만 저에게 영향을 주는 건지



세바시에 출연한 순영,
“사랑한다면 불안해하지
않아도됩니다”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저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알아보고 싶어요.”



입양이라는 “엄청 큰 비밀”을 주변 사람들과 행복하게 나누고 싶어했을 때부터 입양에 대해 분노를 느끼기까지 또 그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들. 이 과정에서 자신과 가족을 지원해줄 입양가족 커뮤니티가 있었다는 것이

입양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했다고 순영은 믿는다. 입양가족 공동체는 성장하고 있는 입양인 뿐 아니라 양부모에게도 도움이 된다. 순영이 세 살 무렵 엄마에게 “엄마, 싫어”라고 말했다고 한다. 엄마는 입양가족 모임에 가서 “딸이 더 이상 날 좋아하지 않아요!”라고 울며 얘기 했대요.” 다른 부모들은 순영의 어머니에게 다 괜찮아질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하지만 순영의 가장 큰 지지자는 가족이며 입양에 대해 기꺼이 솔직하게 말하는 가족들의 열린 마음이 가장 큰 버팀목이다. 국내 입양가족에게 “가장 큰 이슈”는 입양을 비밀로 할 것인가 솔직하게 얘기할 것인가이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가 15~20살이 되어서야 입양 사실을 알려주었대요.” 그런데 순영의 부모님은 처음부터 입양에 대해 숨기지 않았고 이는 순영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우리가 성장하면서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가족으로서 함께 노력했으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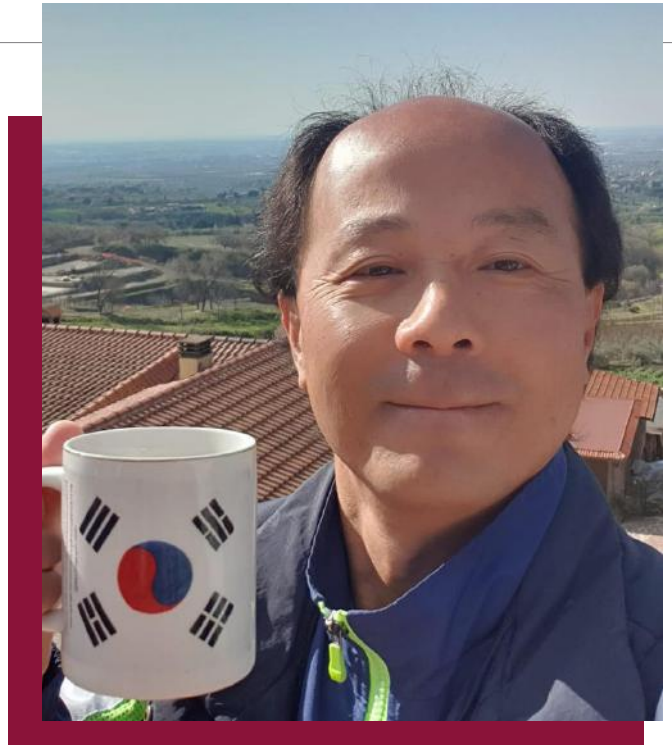
순영의 목표는 입양인들이 자신의 무의식 속의 감정을 탐색할 때 도움을 주는 것이며 자신이 경험한 비슷한 문제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입양은 지금 제 삶이니까 입양에 대해 숨기고 싶지 않아요.”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순영은 현재 청소년교육상담학을 전공하고 있다.

■ 박훈

호세 마리아 말코티

JOSÈ MARIA MALCOTTI

호세 말코티(Josè Malcotti)는 로마에서 온 이탈리아 입양인이다. 그는 이탈리아 입양인 커뮤니티의 리더이며 한국을 22번 방문했다. 스포츠를 향한 열정이 그를 전세계 입양인들과 연결해주고 있다.



성장배경에서 대해 알려주시겠어요.

제 이름은 말코티 호세 마리아이고 한국이름은 박용덕입니다.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고 1977년에 이탈리아로 입양되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천주교 가정으로 입양되었고 여자형제 두명, 남자형제 두명과 함께 컸어요. 모두 입양되었는데 세명은 국내입양이었고 저 포함 두명은 한국에서 입양되었어요.

관심 있는 분야는요?

취미는 테니스, 축구 그리고 여행입니다. 스포츠를 통해 로마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과 입양인으로서의 경험을 나눌 수 있어요.

어떤 일을 하세요?

테니스 강사입니다. 17살때부터 테니스를 쳤습니다.

입양인이라는 사실이 하는 일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입양인이어서 좋은 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탈리아 한인입양인인 저는 이탈리아인과 한국인 모두에게 편하게 테니스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생활과 인간관계에서는 입양이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대인관계에서 가끔 자신감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몇 살 때 입양되었나요? 어린 시절은 어땠습니까?

5살때 입양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매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살던 지역에서 동양인은 저 빼고 딱 한명 더 있었거든요. 11살때 양부모님은 이혼하셨어요. 하지만 교회나 학교 등 주변 이웃들이 저희 남매를 그 전과 다름없이 잘 대해주었어요.

입양되기전 한국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까?

네. 한국 가족 중에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누나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얼굴은 기억나지 않아요. 집에 있었던 낡은 흑백텔레비전도 생각나요. 제가 갔던 보육원과 병원도 기억합니다.

어렸을 때 한국과의 연결고리가 있었나요?

저는 자라면서 한번도 한국과 연결된 적이 없습니다. 한국사람들도 만난 적이 없어요. 2004년 처음으로 경희대학교에 한국어를 배우러 가기 전까지 한인입양인 커뮤니티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입양인 커뮤니티에 참여하게 되었나요? 그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2009년 국립국제교육원에서 후원하는 한국여행에 참여하면서부터입니다. 15개 이상의 나라에서 온 약 1백명의 한인입양인들과 함께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첫 방문 이후 다시 한국에 돌아온 적이 있나요?

2004년이후 한국을 22번 방문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러 한국에 오는걸 좋아합니다.

앞으로의 꿈과 야망은 무엇인가요?

저의 꿈은 한국과 이탈리아 두 나라에서 일을 하며 양쪽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매우 아름다운 나라인 한국에서 또한 매우 아름다운 나라인 이탈리아로 입양된 제가 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답변: Josè Malcotti



표지 아티스트 캐서린 델라 루시아 (CATHERINE DELLA LUCIA)

나는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태어나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 겸 교육자이다. 조각과 도예를 하고 있으며 브랜디이스대학교와 프 레이밍햄주립대학교의 미술 강사이기도 하다.

나의 의식을 최대한 더듬어 돌아보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형성한 나의 정체성의 핵심에는 세 가지 사실이 있다.

나는 여자이며 미국으로 입양된 한인 입양인이고 예술가이다.

정체성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과 선택하지 않은 것들로 이루어진다. 그 중간에 존재하는 모호한 공간이 내가 작품을 창조하기 시작하는 곳이다. 내 작품들은 주로 물리적 또는 은유적 균형을 다루는데, 특히 어떤 사물, 행위 또는 기억이 동시에 나타나는 두 존재 사이의 중간 지점을 다룬다. 전통적인 조각 기법과 디지털 조각 기법을 통해 비현실적, 감성적 사물들이 친밀한 공간(정신적 및 신체적)에서 인체와 어떠한 공존 관계를 가지는 지 탐험한다. 어떠한 문

화적, 사회적, 개인적 영향요소들이 우리 각자의 기호(taste), 기능(function), 향수(nostalgia)의 체계를 결정하는가?

공간도 상품인 시대에 공간이 필요한 작품을 제작하는 소수인종 여성 조각가의 입장에서 공간을 차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본다. 여자 입양인이라는 나의 정체성과 내가 만드는 작품간의 관계는 항상 드러난다. 이는 내가 작품 속에 담고자 하는 상반되는 특성을 통해 분명히 나타난다. 견고하지만 부드러우며 무생물적이지만 성적이고, 귀하면서도 평범하고, 모듈러방식과 영구적인 방식 같은. 이는 입양인의 경험과 매우 친숙한 것이다... 온전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아닌 그 중간 어느 지점.

@cathy_dellalucia
@luciakangceramics

■ www.catherinedellalucia.com

